

6·2 지방선거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재심 결과별 시나리오

인용맨 전략공천·재경선 논란

광주시장 후보 경선 재심과 관련, 민주당 재심위(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에서 실시한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가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봉될 예정이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심위의 투표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3대3 동수 최고위 정치적 판단도 부담 법원·검찰 판단 발표 후로 연기할 수도

◇재심 기각=지난 28일 7명의 재심위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5대 2 또는 4대 3 등으로 이용섭 의원과 정동채 전 의원이 신청한 재심이 기각될 경우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강은태 의원이 광주시장 후보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심위의 투표 결과는 강 의원이 문제의 여론조사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당 선관위는 앞서 '여론조사의 위법성에 상당한 의심이 가지만 객관적

으로 이를 증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재심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고위가 재심위와 선관위의 결정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관측이다.
◇재심 인용=투표 결과, 5대 2 또는 4대 3 등으로 재심이 인용될 경우 강 의원에겐 일당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재심위가 이 의원과 정 전 의원이 주장한 대로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광주시장 경선에 영향을 미쳤

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의는 곧바로 난제에 직면할 전망이다. 전략공천이나 재경선이나를 놓고 논란이 확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찌 됐든 지지도 1위인 후보를 제외할 경우 민심이 반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전략공천 후보군과 재경선 방식 등을 놓고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효표가 나와 3대 3 가부 동수일 경우 최고위원회의가 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법원 및 검찰 판단=최고위가 검찰 수사나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나올 때까지 재심위 투표 결과를 개봉하지 않거나 최종 결론을 유보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강력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점에서 법원과 검찰의 결론을 지켜본 뒤 최종 결정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경우 최고위는 30일 광주시장

후보 경선 재심 문제를 다루지 않고 다음달 2일이나 그 이후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이 조만간 현재 진행중인 수사내용을 민주당에 전달할 가능성도 크다. 당 안팎에서는 이미 일부 수사 내용이 전달됐다는 설도 29일 파다하게 퍼졌다.

서울 남부지법도 이르면 30일이나 5월 초에 이용섭 의원과 정동채 전 의원이 제기한 당선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벗어난 불법 여론조사 논란을 조사 중인 광주지검 공안부(김영규 부장검사)는 29일 모 후보 측 인사로 알려진 임모(44)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임씨를 체포하는 대로 광주 모 언론사가 경선 전 실시해 논란을 야기한 ARS 여론조사에 강은태 의원 측이 관여했는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선거역사 60년 한 눈에 29일 광주시 서구 광동동 유스퀘어 문화관에서 열린 '선거 문화 체험전'을 광주시장 및 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둘러보고 있다. 한국 선거역사 60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등을 볼 수 있는 전시회는 다음달 5일까지 계속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함평군수 예비후보 김성호 무소속 출마 민주경선 불참 선언

함평군수 출마를 준비해온 김성호 전 전남도의원이 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하게 않겠다고 사실상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함평군수 후보는 안병호 전 함평축협조합장만 남게 됐다.

김 후보는 29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 최고위원회

가 지난 28일 전남도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의 함평군수 후보자 선정 과정에 대한 재심사 요청을 수락, 경선을 시행키로 했지만 당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 기간도 짧지만 남게 됐다.

김 후보는 29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 최고위원회

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는 당초 16년 전 범죄사실을 이유로 김 전 의원을 경선 후보에서 탈락시켰으나, 지난 28일 중앙당이 김 전 의원의 이의신청을 수용, 30일과 다음달 1일 여론조사 경선을 할 계획이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전주언 서구청장 무소속 출마하나

검찰 '관련 선거' 혐의 불구속 기소

민주경선 힘들 듯...정치 행보 주목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유력 후보로 여겨졌던 전주언 광구 서구청장이 29일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전 청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 청장의 사법처리도 문제지만, 사실상 민주당 서구청장 경선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오는 5월 11일까지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은 가능하지만, 민주당이 불구속 기소된 전 청장을 '민주당 예비 후보'로 인정하고 경선을 치르는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따라서 전 청장이 구속은 피했지만, 불구속 기소가 된 만큼 다른 정치적 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지역정가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우선 '무소속' 출마가 점쳐진다. 현역 프리미엄을 입고 있는 만큼 무소속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전 청장은 "공정경선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향후 구청장 경선이 실시되더라도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

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전 청장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이날 공무원들을 자신의 선거에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주언 광구 서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현직 청장의 재선을 도운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전 청장의 전 수행비서 이모(42)씨를 구속 기소하고, 임모(56·4급)씨 등 현직 4~6급 공무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서구청의 '관련선거' 의혹과 관련, 전·현직 공무원 48명을 적발해 이 중 8명을 입건하고, 가담 정도가 가벼운 39명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기관 통보했다.

서구청 직원들은 온 종일 일을 손에 제대로 잡지 못하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가담 정도가 가벼운 공무원 39명에 대해서는 검



찰이 기관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그 여파가 조직 내부로 번지지 않을까 조심스라하는 모습이

소속 A공무원은 "직원들이 줄소환될 때만 해도 설마 했는데, 놀랍고 당황스럽다"며 "이렇게 많은 직원이 징계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 이 여파가 더 이상 번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그간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전했다.

전 청장은 이날 "이번 일로 변함없이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서구민과 당원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혐의사실에 대한 무관함을 입증해 보이고 서구 공직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그러나 "연루된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인 만큼,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으로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권일·최경호·이종행기자 cki@

민주 해남·화순군수 후보 대타 누구

해남, 여론조사는 김향옥 강세·김석원·박철환·민인기 등 거론

화순, 무소속 임호경 맞설 대항마 고심...구충곤·이윤모 등 대상

민주당이 해남군수 후보와 화순군수 후보를 각기 전략공천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최종 공천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해남군수 후보의 경우, 이르면 30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당이 전략공천 후보군에 대한 여론조사와 지역 민심과 관세 등에 대한 실사를 마쳤기 때문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전략공천 후보군은 김향옥 예비후보와 김석원 도의원, 박철환 군의원, 민인기 해남 자활센터장 등이다.

최근 중앙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김향옥 예비후보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앙

당은 여론조사 결과와 지역 실사 점수를 합하여 최종 공천자를 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영록 의원은 "일단 30일까지 전략공천 후보자를 결정해달라고 중앙당에 요청한 상태"라며 "해남군민이 인정할 수 있는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화순군수 후보 전략공천 문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반까지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략공천 후보군으로는 구충곤 도의원과 이윤모, 임호환 예

비후보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화순은 임호경 전 군수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전완준 군수는 육종 출마를 결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경선 참여자보다는 거물급 외부인사 영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최인기 의원은 "최소한 내주 초반까지는 후보자를 확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후보군을 대상으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건강한 발을 원하는가?
아이의 몸에, 이온을 전도하라

FILA의 첨단 슈즈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커런트 체너레이터

Orange Up FILA